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와 무용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공정원*·이용희**·김지안*** 서울기독 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와 무용공연, 무용과 치매예방에 관한 사회적 트렌드와 현상을 이해하고 대중의 반응을 알아보는 데 있다. 사회적 트렌드와 현상을 살펴보기 유용한 빅데이터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키워드 분석과 기관, 지역 관계도 분석을 하였고, 무용과 치매예방에 관한 대중의 반응은 SNS 댓글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통해 이해하였다. 연구결과 치매와 무용공연에 관한 언론보도의 빈도가 무용, 치매예방 보다 높게 나타났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치매와 무용공연은 '어르신', '기념일 행사'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무용과 치매예방은 '어르신', '여가지원', '건강체조 및 댄스' 등과 같은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기관, 장소 관계도 분석에서는 무용공연과 치매예방 모두 지역 정책이나 프로그램 시행에 여부에 따라 보도되는 지역적 차이를 나타냈다. SNS에 나타난 무용과 치매예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중립적 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치매와 무용공연, 무용과 치매예방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보여진 사회현상은 무용공연은 기념일 중심의 이벤트성 행사공연에 집중된 특성과 치매예방은 지역사회 건강관리 방법의 한 유형으로 보도되는 특성이 나타났고 치매예방에 대한 SNS의 대중의 반응은 중립적인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과 치매예방을 위한 무용활동 지원이 체계화되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치매, 무용공연, 치매예방, 빅데이터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인구도 동반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치매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치매 유병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매는 인지 손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치매환자 대상 전담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및 돌봄의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원경, 2014; 천정환, 2019). 한편으로 치매는 보호가 힘들고 예방이 어려운 질병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형성되었다(김원경, 2014; 박미정, 오두남, 문혜경, 2018).

김원경(2014)은 치매와 관련된 가족 간병살인과 자살 신문보도 연구에서 주요한 사건발생이 치매환자의 증상 등에 대한 돌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함에 따라 치매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천정환(2019)은 치매케어 범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치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의 어려움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 서울기독 대학교 휴먼서비스 학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fraukong@scu.ac.kr, 주저자

** 서울기독 대학교 기초교양 학부 조교수, yonghee@scu.ac.kr

*** 서울기독 대학교 휴먼힐링 학부 무용전공 조교수, ballet7681@scu.ac.kr, 교신저자

무용은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에 관한 문제점들을 치매노인의 관점과 사회적 관점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치매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치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을 이뤄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영임, 박정수, 윤현서, 김남희 그리고 전진호(2017)는 치매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 경우 치매를 둘러싼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임연옥(2020)은 지역 사회에서 치매에 어떠한 인식을 공감하는가에 따라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고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무용공연을 통한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은 치매예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용이 치매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들을 밝혀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무용은 노인의 인지활동과 기억력,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배혜영, 꺾이섭, 김기진, 2018; 최윤정, 황향희, 김보람, 2010; 최현주, 정승혜, 2020; 황향희, 최윤정, 2010). Morgan 그리고 Stewart(1997)도 환경과 치매환자 행동 관련성 연구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치매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무용을 통한 사회접촉과 의미 있는 움직임이 치매예방에서 중요하게 다뤄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치매에 대한 무용 활동의 기관별, 지역별 격차를 지적하였다. 김선희 그리고 이미란(2016)은 지역기관들에서 수행한 치매예방 교육 프로그램 시행의 기관별 격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지역별 격차도 보고되고 있다. 김예원 그리고 백현순(2020)은 국내 8개 지역에서 치매안심센터의 무용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치매에 대해 무용이 미치는 효과가 밝혀졌지만 이에 대한 활동이 저조하고 지역별 차이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국외 연구인 Herron 그리고 Rosenberg (2017)도 비도시 지역의 치매환자에 대한 경험연구에서 비도시지역의 치매초기에 있는 환자를 위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함으로써 지역 사이에 차이가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출현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정책평가에서 치매대응에 관한 다각적 노력의 필요성과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인지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 왔다(권중돈, 2018; 김선희, 이미란, 2016). 선행연구들을 통해 치매 교육 및 인식증진에 관한 무용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와 관련된 무용이 어떠한 영향과 방향성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서 치매와 무용공연, 치매예방과 무용에 대한 사회적 트렌드와 현상을 파악하고 대중의 인식을 이해한다면 치매에 대한 무용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치매인식과 예방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와 무용공연, 무용과 치매예방에 대한 트렌드와 사회적 현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오랜 기간의 신문기사와 TV 뉴스 보도, SNS 등의 자료로 탐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빅데이터 언론보도 자료 분석이 가능한 언론보도 빅데이터 시스템과 SNS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트렌드와 사회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향후 무용이 치매의 인식개선과 치매예방 활동에 공헌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치매와 무용공연,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사회적 현상(언론보도 경향성, 연관어, 기관 및 장소의 관계도)은 어떠한가?
- 2) 무용과 치매예방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처리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분석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무용과 치매에 관련된 언론보도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한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면, 빅카인즈는 언론사의 뉴스 수집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빅카인즈를 활용한 언론보도의 트렌드 및 추출되는 주요 관련 키워드를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7:1). 선행연구들에서도 빅데이터 언론 분석을 활용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탐색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권충훈, 2019; 정세원, 2020).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4)에서는 빅카인즈의 언론보도문서의 수집이 뉴스 클러스터 방식이 적용되어 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키워드와 관련된 토픽랭크(TopicRank) 알고리즘과 유사도에 의해 언론보도 분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이슈와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 언론보도의 분석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사회적 트렌드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구축이 현실화된 오늘날 사회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SNS의 댓글은 대중의 의견을 접근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감성분석을 통해 대중의 인식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Bakshi, Kaur, Kaur, Kaur, 2016; Liu,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예방과 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이해하고자 SNS의 댓글을 대상으로 감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도구로 R/R Studio 4.0을 활용하였으며 감성분석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군산대 감성사전을 다운로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고려해 SNS의 댓글은 비식별화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감성분석 도구

No.	절차	내용
1	감성분석 사전 (긍정, 부정) 다운로드	군산대 깃허브 사이트 (https://github.com/park1200656/KnuSentiLex)에서 감성사전 다운로드 (neg_pol_word.txt, pos_pol_word.txt)
2	R 라이브러리 적용	dplyr, plyr, stringr
3	텍스트 파일 임포트	urls_utube.txt (파이썬 댓글 수집 파일)
4	극성 분석	긍정, 중립, 부정
5	결과 / 시각화	빈도수, 막대그래프, 파이차트 활용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언론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05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1월15일까지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간의 선정 근거는 2008년부터 시작된 1차, 2차, 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치매국가책임제(박경원, 2017)를 고려해 그 이전 시기인 2005년부터 언론보도를 수집하여 최근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빅카인즈에서 추출된 언론기사에 기반한 댓글을 중심으로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언론보도에서 분석을 위한 충분한 댓글이 추출되지 못해 SNS(유튜브)를 활용한 무용, 치매예방에 관한 댓글 자료를 감성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SNS 댓글을 통한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분석자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신문, 뉴스 등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활용하였다. 따라서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언론 보도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 54개를 활용하였다. 치매와 무용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위에 제시한 기간을 반영하여 2개의 그룹으로 언론보도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룹 1은 치매, 무용공연의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를 추출하였다. 그룹2는 무용, 치매예방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언론보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빅카인즈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사용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으며 키워드로 추출된 언론보도 중 본 연구의 분석과 적합하지 않은 언론보도들을 제외 처리하고자 제외 키워드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 제외된 키워드는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무용에 맞지않는 ‘무용한’, ‘무용하다’ 등과 같은 부적합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을 제외하였다.

- (그룹 1): 치매, 무용공연
- (그룹 2): 무용, 치매예방

SNS(유튜브) 영상의 댓글 정보는 아래<표 2>, <표 3>와 같은 환경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2. 감성분석 데이터 수집 1

운영체제(O.S)	검색 프로그램	검색 사이트	검색 대상
Windows10 Professional	파이썬 3.8.5	유튜브(Youtube)	치매무용+예방 댓글

표 3. 감성분석 데이터 수집 2

No.	내용	파이썬 사용 Library
1	제목 및 URL 검색	selenium, Beautifulshop, requests, time
2	Html 문서 내부 소스 검색	selenium, time
3	댓글 검색	BeautifulShop
4	댓글 수집 및 정제	dataframe, list
5	Excel, csv 문서화	-

III. 연구 결과

1. 빅데이터를 통한 치매와 무용공연,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결과

1) 연도별 언론보도 추이

치매, 무용공연 그리고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언론보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언론보도 빈도를 <표4>에 제시하였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치매와 무용공연(그룹 1)의 키워드로 분석한 언론보도는 총 250건이 추출되었다. 동일 기간의 무용, 치매예방(그룹 2)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분석한 언론보도는 총 74건이었다. 따라서 치매와 무용공연의 언론보도가 무용과 치매예방의 언론보도 보다 176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반적 치매, 무용공연에 대한 언론보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 언론보도 빈도가 증가하다가 이후 하락하였고 2019년에 들어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8건)에는 가장 보도가 적었던 2006년(7건), 2007년(8건)과 유사하게 낮은 언론보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 및 공연이 취소된 것과 연결하여 고려해 볼 수 있었다. 2016년부터 2020년은 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과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마련되어 각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매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무용과 치매예방이 포함된 언론보도 연도별 추이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지 않

았지만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언론보도가 24건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키워드 검색별 연도별 언론보도 건수 (2005년~2020년)

(단위: 건수)

연도	(그룹 1) 치매, 무용공연	(그룹 2) 무용, 치매예방	비고
2005년-2007년	37	17	
2008년-2012년	78	23	- 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년-2015년	60	10	- 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6년-2020년	75	24	- 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치매국가책임제(2017년)

2) 관련어 키워드 분석

치매와 무용공연의 키워드와 치매예방과 무용의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순위의 키워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주요한 연관어 분석결과 치매와 무용공연에서는 ‘어르신들’, ‘노인들’, ‘노래자랑’, ‘기념행사’, ‘부채춤’, ‘천안시’, ‘효행자’, ‘이날행사’, ‘부산’, ‘송락예술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 다음으로, 치매예방과 무용의 관련어가 높은 순위로는 ‘어르신들’, ‘노인들’, ‘여가지원프로그램’,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포크댄스’, ‘웰빙댄스’, ‘진맥’, ‘맷돌체조’, ‘정신건강’ 이었다<표 5>. <표 5>에는 제시되지 않지만 치매예방과 무용에 대한 검색의 11, 12 위에서는 ‘웃음치료’, ‘건강관리’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시각화 자료인 워드클라우드는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표 5. 연관어 분석 (토픽랭크 알고리즘 기준)

순위	(그룹 1) 치매, 무용공연	가중치	(그룹 2) 무용, 치매예방	가중치
1	어르신들	14.76	어르신들	9.75
2	노인들	9.52	노인들	8.8
3	노래자랑	6	여가지원프로그램	6.55
4	기념행사	5.8	댄스스포츠	6
5	부채춤	4.39	건강체조	5.48
6	천안시	3.91	포크댄스	5.33
7	효행자	3.91	웰빙댄스	4.8
8	이날 행사	3.81	진맥	4.8
9	부산	3.53	맷돌체조	4.42
10	송락예술단	3.53	정신건강	4

안심센터 소개와 함께 치매예방 건강교실, 무용공연 등을 보도하였고 관련 장소로 동대문구, 청량리동이 추출되었다. 제민일보(김효영, 2007.01.06.)의 제주지역사회 봉사단의 봉사활동에 관한 보도에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었고 한라일보(진선희, 2019.03.26.)는 제주 애월읍 상가리의 '문화곳간 마루'에서 치매예방 무용교육 실시에 관한 보도가 제시되어 제주시, 제주가 관계도로 분석되었다. 아시아 경제(김홍순, 2020.07.27.)의 SK텔레콤의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인 창덕 아리랑 소개와 함께 이를 활용한 무용관람이 가능하다고 소개하면서 KT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접목한 "치매예방 솔루션"이 포함된 언론보도도 함께 제시되어 영국, 서초동, 마포구 등의 장소 네트워크가 추출되었다. 한 언론보도(곽태영, 2019.06.10.)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군포시의 치매안심센터와 문화원의 치매예방 사업에 관한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문화 예술치유 사업보도에서 군포시의 장소가 포함되었다. 머니투데이(박다해, 2016.06.13.)의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 창작공간의 소개에서 무용과 치매예방을 다루었다. 이 기사에서 영등포구, 문래동과 그밖에 문화지역들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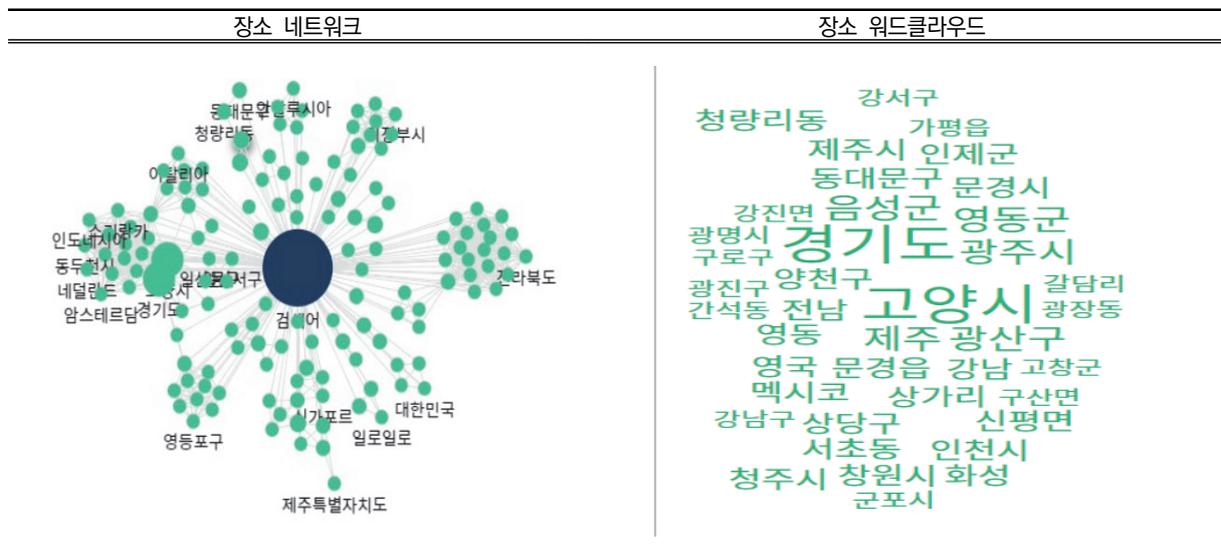


그림 3. (그룹2) 무용, 치매예방에 관한 장소 네트워크 분석결과

2. 무용과 치매예방에 관한 사회적 인식

1) 무용과 치매예방에 관한 감성분석 결과

무용과 치매예방에 대한 긍정, 부정 등의 인식상태를 확인하고자 SNS(유튜브) 영상에 있는 댓글 정보를 검색한 결과 91개의 댓글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표 6). 그 결과 긍정이 28%, 부정이 5%, 나머지 중립이 67%를 차지하였다. 무용, 치매예방과 관련되어 중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긍정, 부정 순으로 나타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중립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긍정은 25%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표 6. SNS(유튜브) 댓글 감성분석 결과

(단위:건수)

무용, 치매예방의 감성분석 결과		
긍정	중립	부정
25	61	5

IV. 논 의

본 연구는 치매, 무용공연 그리고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사회적 트렌드와 현상을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주요 언론사, 방송사, 지역 언론보도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자료로 이해하였다. 또한, 무용과 치매 예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SNS 댓글을 통한 감성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지난 15년간 치매와 무용공연,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사회적 트렌드와 현상에 관한 결과에서 치매 예방에 대한 언론보도가 치매와 무용공연에 관한 언론보도보다 낮게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치매예방에 관해 김예원 그리고 백현순(202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치매예방 무용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와도 연결하여 이해해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치매예방을 위한 무용활동이 소규모로 진행되어 언론보도로 다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배혜영 등, 2018; 최윤정 등, 2010; 황향희, 최윤정, 2010)에서 무용이 치매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 한 바 있다. 치매예방에 관한 무용의 지난 15년간의 사회적 트렌드와 현상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예방의 방법으로서 중요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한 치매예방을 위한 무용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안정시키는 방안 개발이 필요하였다.

한편으로, 임연옥(2020)은 지식중심의 치매교육이 오히려 치매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제시하면서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만을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와 같이 치매에 대한 무용공연과 치매예방을 위한 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치매환자, 치매환자의 가족,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미있는 움직임이나 무용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치매와 무용공연,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기관, 장소 관계도 분석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홍보하는 지역 중심의 보도와 공연하는 인물과 장소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나타났는데 이는 각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치매와 무용에 관련된 공연, 행사, 예방활동을 한 경우 지역명이 두드러지게 워드클라우드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치매와 무용공연, 치매예방과 무용에 대한 지역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행연구들(김예원, 백현순, 2012; Herron, Rosenberg, 2017))에서 지적해온 문제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지역사이의 차이와 관련하여 Herron 그리고 Rosenberg(201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치매에 대한 무용공연과 치매예방과 무용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NS 댓글 기반 무용과 치매예방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 중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대중들의 반응이 긍정, 부정 보다 중립적인 부분이 더 큰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중들의 치매예방에 대한 무용의 사용에 관한 반응으로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미정 등(2018)이 중장년층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중장년층의 높은 치매예방의 관심과 달리 치매에 관련된 교육은 낮게 나타났다고 밝힌 부분과 이성은(2015)의 연구에서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인지율 보다 치매예방에 대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치매예방 활동지원에 대한 사회적 기회 부족과 인식부족과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박미정 등, 2018)에서 제시한 치매예방 여부에 따라 치매극복 등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했다고 설명한 바와 같이 치매로 인해 어려운 상황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무용공연을 통해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전달하고 치매예방의 효과를 위한 무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무용이 치매에 대한 예방과 긍정적 인식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무용은 오랫동안 대중화나 일반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무용이 치매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 형성과 치매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무용의 동작과, 움직임 등을 개발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무용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역할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대한 공감적 사회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나 이벤트로 제한되는 기념일 중심의 치매에 대한 무용공연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치매와 관련된 무용공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치매에 대한 무용공연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복지관, 보건소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무용협회, 의료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관 방문을 통해 진행되는 무용공연의 경우 치매노인 맞춤형 공연 및 예방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무용공연의 경우 치매노인이 오랫동안 앉아 있기 힘든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한 함께 참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병원 등에서 공연을 할 경우 관중은 치매노인, 치매노인의 가족, 복지기관 관계자가 될 수 있다. 대중의 특성에 맞게 치매에 관한 무용공연이 기획 된다면 무용공연이 치매에 미치는 효과는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노인과 치매노인의 가족대상 무용공연은 치매로 인한 노인과 가족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동작, 움직임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치매노인과 가족이 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 경감과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치매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치매노인의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면 인지손상에 대한 보호 혹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 공유가 필요하며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서의 무용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무용전문가, 의료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치매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무용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집합모임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의 분석에서는 치매, 무용공연에 대한 기사가 현저히 줄었다. 최근 무용공연이 SNS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대적 요구가 높아진 다양한 SNS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무용공연 취소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무용공연을 활용한 치매예방을 치매노인과 가족에게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활동이 줄고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치매, 무용공연과 치매예방과 무용에 관한 빅데이터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치매에 대한 무용활동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로 언론보도 자료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키워드 매칭 과정에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누락된 보도 및 부적합한 보도의 최소화를 위해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누락과 부적합 언론보도 추출을 완벽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을 살펴본 연구로 키워드 간의 면밀한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에 대한 무용활동의 현상을 파악한 연구로 이후에 치매에 대한 무용공연과 치매예방을 위한 무용활동에 접목될 수 있는 여러 대안에 관한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군산대 감성사전. <https://github.com/park1200656/KnuSentiLex>.
- 김예원, 백현순(2020). 전국 치매안심센터 무용프로그램 활동 현황: 주요 8개 지역 중심으로. *국제문화예술*, 1(1), 23-38.
- 김원경(2014).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219-246.
- 김선희, 이미란(2016). 지역사회 치매관리 및 예방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영도구를 중심으로. *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6), 93-101.
- 권중돈(2018).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보건사회연구*, 38(1), 9-36.
- 권충훈(2019). 최근 정권별 '자사고' 관련 언론사 기사의 변화 추이 탐색-빅카인즈 시스템 분석을 통한 인문사회 21, 10(6), 1757-1771.
- 박경원(2017).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정책포럼*, 15(3), 51-56.
- 박미정, 오두남, 문혜경(2018). 중장년층의 치매관련 태도와 치매예방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653-663.
- 박영임, 박정수, 윤현서, 김남희, 전진호(2017). 지역사회 노인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요인.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4), 829-839.
- 배혜영, 박이섭, 김기진(2018). 강강술래를 활용한 무용치료프로그램이 경증 치매노인의 정서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코칭능력개발지*, 20(1), 64-72.
- 이성은(2015). 지역사회 노인의 치매예방서비스 인지도 관련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143-171.
- 이혜경, 김소울(2019).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구 오일 및 응용과학 학회지)*, 36(4), 1373-1384.
- 임연옥(2020). 지역사회 주민의 치매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 *Crisisonomy*, 16(4), 17-32.
- 정세원(2020). 의미연결망분석과 정서분석 기법을 통한 우리나라 중앙지 EU 관련 기사 텍스트 연구. *EU 학 연구*, 25(2), 97-116.
- 천정환(2019). 케어범외 예방을 위한 심리적 개입에 관한 고찰. *공공정책연구*, 36(1), 265-288.
- 최윤정, 황향희, 김보람(2010). 무용치료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운동적 기억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학회지*, 49(1), 373-382.
- 최현주, 정승혜(2020). 한국무용에 내재한 치매 예방적 요소에 대한 제안: 치매 예방행위의 관계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9(2), 901-915.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Electronic version]. Retrieved November 20, 2020, from <https://www.bigkinds.or.kr/>.
- 빅카인즈(BIGKinds) 홈페이지 (2020). Retrieved November 20, 2020, from <https://www.bigkinds.or.kr/>.
- 하상현, 노태협(2020). SNS 기반 여론 감성 분석.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6(1), 111-120.
- 황향희, 최윤정(2010). 무용치료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적 기억수행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운동재활학회지*, 6(3), 27-38.
- Bakshi, R. K., Kaur, N., Kaur, R., & Kaur, G. (2016).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In 2016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for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INDIACom) (pp. 452-455). IEEE.
- Herron, R. V., & Rosenberg, M. W. (2017). "Not there yet": Examining community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partners in 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173, 81-87.
- Liu, B. (2012).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Synthesis lectures on human language technologies*, 5(1), 1-167.
- Morgan, D. G., & Stewart, N. J. (1997).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environment in dementia car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9(6), 740-761.
- <언론보도자료>
- 김태성(2014.10.21). 경기도에 실버바람이 분다... 29일 노인일자리경진대회. 경인일보.
- 김효영(2007.01.06). 퇴직 후 또 다른 인생이 활짝. 제민일보.
- 김흥순(2020.07.27). 전설의 '해치' 따라 창덕궁 '춘앵무' 보고 왕후와 찰칵. 아시아경제.
- 내일신문(2010.10.11.). 제12회 송파노인문화제.
- 곽태영(2019.06.10.). 군포시, 문화-예술로 치매 예방. 내일신문.

- 박다해(2016.06.13). 폐공장·철공소 취수장까지... '버려진 곳' 파고드는 예술. 머니투데이.
- 박성준(2020.01.08). 팝콘 먹으며 '까르르'... 스마트폰 사용도 OK. 세계일보.
- 이호창(2019.05.07).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CMI) 대전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어버이날 행사 개최. 대전일보.
- 임진홍(2019.11.04).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종결식. 경기일보.
- 유선희(2018.08.06). 환자 아닌 예술인과 우아함·밸런스 공유. 한겨레.
- 진선희(2019.03.26.) 제주 애월 상가리 유희 시설 춤 공간 탈바꿈. 한라일보.
- 허재경(2019.09.19). 서울 동대문구, 치매극복의 날 기념 '우리는 날마다 청춘' 개최. 한국일보.

ABSTRACT

Analysis of media reports on dementia and dance using big data

Jung Won Kong* · Yonghee Lee** · Jiahn Kim***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ocial trends and phenomena related to dementia and dance performances, dance and prevention of dementia, and to investigate public reactions. For this study, keyword analysis and regional relations were also analyzed through big data media report analysis, which is useful to understand social trends and phenomena. And also sentiment analysis using SNS comment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public's response to dance and dementia prev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requency of media reports on dementia and dance performances was higher than that of dance and dementia prevention. In keyword analysis, dementia and dance performances were highly related to the elderly and anniversary events. Dance and prevention of dementia showed high correlations with community health care such as leisure support, healthy gymnastics and dance.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and places, both dementia and dance performances and dementia prevention related to dance showed regional differences reported depending on the implementation of local policies or programs. The public's perception of dance and dementia prevention on social media showed high neutral sensibility. The social phenomena that emerged through press reports on dementia and dance performances are focused on event performances centered on anniversaries, and prevention of dementia is reported as a type of health care method in the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hoping that the support of dance activities for dementia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about dementia will be settled stably in our society.

Key words : Dementia, dance performance, dementia prevention, big data

논문투고일: 2020.11.30

논문심사일: 2021.01.04

심사완료일: 2021.01.18

* Kong, Jung Won Assistant Professor, Human Service Department, Social Welfare Major, Seoul Christian University

** Lee, Younghee Assistant Professor, Basic Liberal Arts Department, Seoul Christian University

*** Kim, Jiahn Assistant Professor, Human Healing Department, Dance Major, Seoul Christian University